

1위 올라선 두산, 삼성·넥센 상대로 원정 6연전 도전

KIA, 지난주 4연승 거둬 8승5패로 NC와 공동 3위 올라
‘최하위’ 롯데, 1승4패 그쳐...마운드 붕괴에 침체 장기화

프로야구 전망대

단독 1위로 올라선 두산 베어스가 원정 6연전에 나선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주(3일~8일) 4승 무패를 기록해 시즌 9승3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주초 LG 트윈스를 연파한 두산은 주말에 이를 연속 NC 다이노스를 제압했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에 내줬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두산 최주환은 3일 LG와의 경기에서 연장 11회말 결승 2루타를 터뜨려 팀의 5-4 승리를 이끌었다. 최주환은 지난주 3차전이나 결승타를 날려 연승에 기여했다. 두산 4번타자 김재환은 무려 0.714(14타석 7타수 5안타 1홈런)의 타율을 기록했고, 무려 7개의 볼넷을 끌어들였다. 김재호도 5할이 훌쩍 넘는 타율로 타선을 이끌었다. 두산 이용찬과 조쉬 린드블럼은 선발승을 거뒀고, 마무리 김강릉은 2개의 세이브를 기록했다. 불펜진

은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잠재력이 풍부하다. 삼성세를 타고 있는 두산은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원정 6연전에 나선다. 두산은 올해 삼성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1패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2승1무3패의 압도적인 성적을 올렸다. 두산은 지난해 넥센을 상대로는 8승8패로 호각세를 보였다. KIA는 지난주 4연승을 달리는 4승1패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시즌 8승5패를 기록한 KIA는 NC 다이노스(8승4패)와 함께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다. 막강한 타선이 불을 뿜었다. 이범호는 3일 SK 와이번스전에서 연장 10회초 결승 홈런을 터뜨려 3연패에서 탈출하는 데 앞장섰다. 최형우는 지난주 0.579(19타수 11안타)의 고타율을 기록했다. 나지완 김주찬, 최원준, 안치홍 등이 4할이 넘는 타율을 선보였다. 김주찬

과 안치홍은 나란히 2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지난해 20승 듀오 양현종과 헥터 노에시가 나란히 선발승을 올렸다. KIA는 10일부터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을 치른 후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3연전에 나선다. 한화 역시 3승1패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평균자책점 8.00을 기록할 정도로 미운드는 불안했지만, 타선의 위력이 대단했다. 4경기에서 무려 38점을 올렸다. 지난 9일 KT 위즈전에서 경기 후반기 무려 9점을 뽑아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다. 특히, 간판타자 송광민은 0.450(20타수 9안타)의 고타율에 무려 10타점을 쏟아냈다. 득점권에서 9타수 6안타로 맹타를 휘둘렀다. 홈런군단 SK 와이번스는 5할 승률(2승2패)을 유지하면서 시즌 8승4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주 제이미 로맥이 2개의 홈런을 날리는 등 총 9개의 홈런을 몰아쳤다. 4점대 평균자책점을 기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패넛트레이스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연장 11회말 끝내기 안타를 터뜨린 두산 최주환이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록하고 있는 투수진 역시 SK의 강점이다. 롯데는 지난주 1승4패에 그쳤다. 시즌 2승11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미운드가 붕괴되면서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윤성빈이 첫 선발승을 올렸을 정도다. 불펜이 역할을 못해준 원인이 있다.

롯데는 손아섭을 제외하면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다. 2할대에 머물러 있는 이대호의 부진이 뼈아프다. 민병헌, 정준우 등 주축 타자들의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다.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KIA 임기준, 볼 1개 던지고 승리투수

KIA 좌완투수 임기준이 볼 1개만 던지고 승리를 누렸다. 임기준은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3차전에서 2-3으로 역전을 당한 7회말 구원투수로 등판해 아웃카운트 1개를 잡고 승리를 얻는 기쁨을 누렸다. 팀은 4-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렸다. 이날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7회 KIA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7회부터 구원에 나선 김윤동이 구위가 흔들리며 김하성에게 역전 투런홈런을 맞았다. 2사후에도 초이스 중전안타. 김민성 볼넷을 내주고 추가 실점 위기를 초래했다. 김기태 감독은 임병욱 타석에서 좌완 임기준을 마운드에 올렸다.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초구에 임병욱을 2루 땅볼로 유도하고 가볍게 볼

을 쳤다. 7회말 대타 나지완의 동점타와 김선빈의 역전타가 나와 4-3으로 경기를 뒤집어 임기준에게 승리 기회를 주었다. 8회부터는 임창용이 비탈을 이어 10이닝을 잘 막았고, 9회는 김세현이 3루타를 맞고도 후속 타자들을 잡재우고 4-3 승리를 지켰다. 임기준은 최소투구(1개) 승리투수의 진기록을 세우는 순간이었다. KBO 통산 19번째이다. 구단 역사로는 2012년 6월 7일 광주 삼성전에서 진해수(현재 LG) 이후 두번째였다. 임기준은 2010년 입단 이후 이번 승리가 통산 두 번째였다. 2015년 9월 5일 대구 삼성전에서 선발승을 낚은 이후 처음이다. 그는 “올해는 개막 엔트리에 들어 불펜에서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열심히 던지다보니 생각치 못한 1구 승리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경 “제가 들어간 세트는 다 졌네요”

8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의 최고 스타는 김연경(상하이)이었다. 경기 전 몸을 풀기 위해 김연경이 코트로 들어서자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다. 코트에 선 시간은 많지 않았다. 1세트 막판 잠시 모습을 드러낸 김연경은 5세트에야 다시 등장했다. 김연경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4번의 공격 기회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월드 클래스의 진가를 뽐냈다.

김연경은 “분위기를 바꾸고, 이기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간 세트는 다 졌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웃었다. 한국은 이날 태국에 2-3(24-26 25-13 25-21 12-25 13-15)으로 역전패했다. 김연경이 땀 1세트와 5세트는 모두 태국이 차지했다. 휴식을 포기한 채 달려온 이유는 오뎀이 팬들 때문이었다. 잠깐의 국내 일정을 마친 김연경은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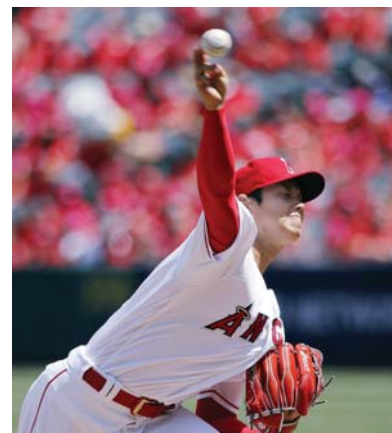
‘천재의 정의’ 오타니, 오클랜드전 7이닝 무실점

시즌 2승...메이저리거서 투타 겸업 성공신화

메이저리거에서 ‘투타 겸업’이라는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이번에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오타니는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거(MLB)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등판 70년 1피안타 12탈삼진 1볼넷 무실점 역투를 펼쳐 승리투수가 됐다. 최근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

며 타자로서의 주가를 올린 오타니는 이번엔 선발투수로 나와 7회 1사까지 퍼펙트 피칭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타니는 시즌 2승째를 수확했고 평균자책점은 4.50에서 2.08로 끌어내렸다. 이날 오타니는 최고 99.6마일(160km)의 광속구를 뿌리면서 타자를 압도했다. 140km대의 스피리터를 워닝 샷으로 무려 8개의 삼진을 잡아챘다.

1회초 3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한 오타니는 2회부터 7회 1사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누상에 내보내지 않았다. 오타니는 7회 1사 후 마크스 세미엔에게 첫 안타를 맞은 후 제드로우에게 볼넷을 내줬다. 이에 분발한 오타니는 크리스 데이비스를 투수 앞 땅볼로 잡아낸 후 맷 울슨을 삼진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날 오타니의 투구수는 91개였다.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호투를 앞세워 6-1로 완승을 거뒀다.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거(MLB)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등판, 7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마침내 웃을 것인가...윤호영, 우승반지 향한 3전4기



8일 오후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 원주 DB와 서울 SK의 경기, DB 윤호영이 슛을 하고 있다.

프로농구 원주 DB의 베테랑 포워드 윤호영(34)은 생애 첫 챔피언 반지를 향한 열망이 대단하다. 팀의 에이스 정규리(최우수선수(MVP), 국가대표) 부족할 것 없는 커리어를 쌓았지만 유일하게 우승 경험은 없다. 일단 출발은 좋다. DB는 8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전4선승제) 1차전에서 98-90으로 승리해 기세를 제압했다. 윤호영은 15분4초 동안 6점 2리바운드 2블록슛 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미미해 보이지만 공수에서 밸런스를 잘 잡았다. 이상범 DB 감독은 정규리에서 윤호영을 3·4쿼터 승부처에서 주로 기용했다. 철저한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전격 선발로 기용했다. 전술의 핵심이고 경험이 중요한 단기전에서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윤호영은 한때 ‘윤미미’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다. 공격보다 수비적인 성향이 강해 수적으로 드러나는 기록이 보잘 것 없다는 데서 나왔다. 감독들의 생각은 다르다. 197cm의 큰 신장에 내외곽 플레이에 모두 능하고 스피드를 겸비했다. 특히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

당히 크다. 신인 시절부터 김주삼과 ‘동부산성’이라고 불리며 막강한 높이를 과시했다. 블록슛 타이밍이 매우 좋다. 이런 장점은 그를 정규리그 MVP, 국가대표로 만들었다. 하지만 무관이다. 앞서 챔피언결정전에 세 차례 진출했지만 단 한 번도 정상에 서지 못했다. 윤호영이 부진했다고 볼 순 없다. 첫 챔피언결정전이었던 2010~2011시즌에 평균 7.7점 6리바운드 2.8어시스트 1.5블록슛, 2011~2012시즌에 13.2점 5.5리바운드 2어시스트, 2014~2015시즌에 10.7점 5.3리바운드 1.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주축 선수로 제몫을 했지만 윤이 따르지 않았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다. 이번 시즌 최약체로 평가받던 팀에 부상 재빨로 뒤늦게 합류한 윤호영의 의지는 남다르다. 윤호영은 “일단 1차전에서 승리해 기분이 좋다. 분위기를 빼앗기지 않아 다행인 것 같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사실 초반에 분위기를 잡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말아먹은 경향이 있다. 선수들과 부족한 부분을 다시 얘기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승이 간절하다”는 윤호영은 “꼭 간절함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막 달려들고 우승에 목을 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코트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는 자제다.